

불순한 복종, 난잡한 복종

— 『안티고네의 주장』 조현순 옮김(동문선, 2005)

김 미 연*

죽음과도 같은 안티고네의 운명을 통해, 가족의 정상성을 복귀하려는 것도, 근친상간적 실천을 찬양하려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한 곤궁한 처지는 친족의 위기에 대한 알레고리를 분명히 제기한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이스킬러스의 클리템네스트라 그리고 유리피데스의 메디아. 이 세 인물들은 극 중에서 코러스들로부터 '사내답다'거나 '대장부답다'거나 '비정하다'는 말을 듣는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문맥은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 '지나침'을 탓하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난의 의미 뒤에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클리템네스트라, 메디아, 안티고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클리템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이기 때문에? 메디아가 남편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기

* 경희대 국문과 강사

자식을 죽이기 때문에?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법에 대항하기 때문에?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성이 감히 남성의 질서에 도전하고 저항하고 그것을 파멸시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되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해석은 버틀러의 눈에 여전히 여성/남성이라는 성차의 이분법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버틀러의 논의를 충실히 받아들인다면, 이들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젠더 역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른바 재현 불가능으로서의 역전이다.

여자/남자라는 성차가 확연한 시대에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고 남자답다는 것, 계집애 같지 않고 사내답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안겨준다. 그것은 차이의 구조를 토대로 오랫동안 길들여진 부권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 질서가 억압하고 있는 혼돈을 상기시킨다. 요컨대 클리템네스트라, 미디어, 그리고 안티고네와 같은 '사내다운' 여자들은 적어도 성차(sexual difference)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인물들, 다시 말해 기존 질서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적인, '이상한(queer)'인물들이다. 버틀러는 이러한 억압된 무의식을 들춰내고 있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주장』 말미에서 안티고네를 '퀴어적인 영웅'으로 확고하게 정치화하려 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녀의 행위가 이성애적인 성욕성에 치명적인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이것이 버틀러가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버틀러가 지적하다시피 『안티고네』의 대표적인 읽기로 알려진 헤겔과 라캉의 글에서 이런 점이 전혀 지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버틀러의 시각에서 보면 『안티고네』를 '장엄하고도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읽는 헤겔이나, 안티고네를 윤리적인 영웅으로 읽는 라캉 모두 그녀를 '이성애적인 가족(친족) 구도'안에 묶어 놓고 있다. 헤겔은 안티고네의 오빠에 대한 사랑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녀를 어머니로 읽고자 한다. 라깡은 안티고네가 그토록 애정을 보이는 오빠를 실체가 없는 ‘순수 존재(pure being)’로 본다. 또한 헤겔과 라깡의 글에서 안티고네는 공통적으로 친족법을 대표하여 국가법에 저항하는 ‘대표’여성이다.

안티고네를 라깡과 또 다르게 영웅적으로 평가하는 이리가레이는 어떤가? 안티고네의 욕망 혹은 죽음충동의 문제에 골몰하는 라깡과는 달리, 이리가레이는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혈연을 기반으로 한 친족을 대표하고 폴리스에 대항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페미니스트가 적극적으로 모방해야 할 적절한 대상이라고 찬양한다. 이리가레이의 읽기는 안티고네를 대표여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헤겔과 라깡의 읽기와 공유하는 점이 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독법은 헤겔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친족과 국가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여성을 친족 구조에 매어 놓음으로 해서 기존의 자연/문화, 여성/남성의 이분법을 다시 한번 굳히는 셈이 되고 만다. 버틀러는 헤겔과 라깡 그리고 이리가레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족/국가 ‘분리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렇다면 안티고네는 어떻게 여자/남자 혹은 친족/국가의 이분법을 문제적으로 만드는가? 어떻게 그녀는 ‘문지방’에 위치한 존재가 되는가? 그녀가 이분법을 교란한다면, 그것의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그녀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게 되는 사건의 경위를 보자. “안티고네의 죄목은 그녀의 숙부이자 왕인 크레온이 매장을 금하는 칙령을 공포한 후에 자신의 오빠를 매장한 것이었다. 그녀의 오빠 폴리네이케스는 이 왕국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지위라 생각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테베에 있는 자기 형의 정권에 대항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모두 죽는다. 죽은 형제의 외숙부인 크레온은 테베의 왕위 계승자로서 폴리네이케스를 반역자로

단정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장례를 거부하고, 사실상 그의 시신이 벌거벗겨져 모욕당하고 참혹하게 유린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의 시신을 개와 새의 밥이 되게 둔다. 이 때 안티고네는 그를 묻어주고, 또한 묻어준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로 인해 그녀는 크레온의 명령에 따라 산 채로 동굴 속에 갇힌다.

버틀러의 지적에 따르면 안티고네의 위반은 첫째 친족 구조 위반, 둘째 젠더 위반 그리고 셋째 언어적 위반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안티고네는 근친상간의 관계에서 나온 딸일 뿐 아니라 오빠를 향한 불가능한 근친상간적 사랑에 몸을 던지는 인물이다. 아버지 오이디푸스는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아들이기에 안티고네의 오빠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인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기에 안티고네에겐 할머니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오빠이기도 하다면, 정작 안티고네의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안티고네의 조카가 되기도 한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녀는 통일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에 친족 구조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 점은 안티고네의 다음 대사에서 더욱 더 분명히 드러난다. “남편이 죽었다면 내게 다른 남편이 생길 수가 있고, 첫아이를 잃었다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아이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저 아래 하데스에 계시니, 내게는 절대로 또 다른 오빠는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법이 그러하므로 그러한 법을 위해 내가 누구보다도 오라버니 당신에게 각별히 존경을 보냈건만, 크레온에게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였고, 지독히 무모하게 보였던 거예요.” 안티고네 자신이 밝히듯이 그녀는 오직 오빠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지 “모든 친족을 위해 행동하진 않는다.” 따라서 그녀는 분명 친족구조를 대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구조를 위반하는 입장에 있다.

둘째, 안티고네는 코러스나 크레온 그리고 메신저로부터 ‘남자답다’

고 불린다. 크레온은 안티고네가 만일 처벌받지 않는다면 “내가 남자가 아니라, 그녀가 남자일 것이다.”라고 외친다. 즉 안티고네의 고집스런 행동은 크레온과 안티고네 사이에서 젠더를 뒤집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 오이디푸스 또한 자신이 추방되었을 때 돌보아준 안티고네의 충정에 대해 ‘남자’라고 부른다. 아버지를 따라 황야로 나섰지만, 어느 순간 안티고네가 오이디푸스를 이끌고 간다. 오이디푸스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딸들이 지금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그 딸들이야말로 나의 보호자이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다.” 오이디푸스는 아들들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젠더 역전에 해당하는 비유를 사용한다. 요컨대 안티고네는 여자/남자라는 경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셋째,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한 것에 대해 크레온이 “너는 네가 한 짓이라고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라고 묻자, 안티고네는 “시인합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다른 번역어로 “그래요, 고백합니다. 저는 제 행동을 부인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한다. 안티고네는 “제가 그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는다. 즉 안티고네는 행동과 행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런 문법을 어기고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지 거부하는지 모호하게 한다. 안티고네의 언어 위반은 코러스와 크레온으로부터 ‘남자’라는 말을 듣게 하는 것으로서 젠더 위반과 연결된다. 그녀가 남성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녀가 법에 저항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에 저항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녀가 법의 목소리를 띠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기가 반대하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전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다.

버틀러가 안티고네의 이런 위반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안티고네와 크레온을 각각 친족과 국가, 여성과 남성을 ‘대

표'한다고 보고 그 둘이 서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기존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읽기이다. "사실 이 두 행위는 서로 맞서는 것이기 보다는 서로를 거울처럼 되비치고 있다. 크레온에게 말을 하면서 안티고네는 남성다워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크레온은 남성성을 잃는다. 그 둘 다 젠더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친족의 교란은 극 전체에서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이상적인 형태의 친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의 일그러짐과 자리바꿈을 대표한다." 따라서 죽음과도 같은 삶이라는 안티고네의 운명은 "친족의 위기에 대한 알레고리"이며 "공적으로 애도되지 못하는 상실"(예를 들면 에이즈로 인한 상실 같은 것)을 예시해준다. 과연 어떤 것이 합법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떤 상실이 애도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이것이 그녀의 위반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의미 중 하나다.

정치성과 관련해서 버틀러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가 제기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즉 국가의 지원이나 중재 없이도 친족이 존재할 수 있는가? 국가를 지원하고 매개하는 가족이 없다면 과연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서로가 침해하게 대치될 때, 서로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버틀러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안티고네가 범죄 행위를 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말할 때, 안티고네는 자신이 대항하는 바로 그 국가의 언어를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의 언어는 순수하게 반대의 정치성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성"을 띠게 된다. 근친상간적 소유욕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요구에 대한 안티고네의 대응에도 비슷한 정치성을 살펴 볼 수 있다. 평생 죽은 사람 말고는 어떤 남자도 없을 것을 명령하는 오이디푸스의 요구, "그 누구에게도 너희는 내게서 받은 것 이상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런 나 없이 너희는 여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에 대해 안

티고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오빠에 대한 사랑으로 바꿈으로써 오이디푸스의 저주를 “존중하는 동시에 불복한다.” 즉 안티고네는 아버지의 요구에 복종하지만, “난잡하게” 복종한다.

재미있는 것은 안티고네가 국가에 대해 불순한 정치성을 피력하고 아버지의 요구에 난잡하게 복종하듯이, 버틀러 역시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헤겔과 라캉의 읽기에 대해 ‘불순한’ 정치성을 피력한다는 점이다. 헤겔과 라캉 그리고 버틀러의 안티고네 읽기는 어떻게 다르고 어느 지점에서 분리되는가? 그렇다면 버틀러의 읽기는 헤겔과 라캉의 읽기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 좀 더 확장하면 퀴어 이론은 정신분석학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버틀러는 라캉의 안티고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1장에서 정신분석학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다. 예를 들면 버틀러는 “우연적 규범의 우연성이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정신분석학이 일조해온 것으로 본다. 버틀러의 지적에 따르면, 정작 우연적 규범(예를 들면 이성애적 가족 구조)의 우연성을 지적하려 할 때 ‘하지만 그게 법인 걸!’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정신분석학을 하는 사람을 겨냥)은 “상징적 아버지, 즉 정신분석학적 법 자체에 대한 모든 비판을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정신분석학 이론 속에 내재된 신화적인 충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여성 히스테리 연구에서 출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남자의 발달과정에 집중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기준으로 여자를 설명하려 든다. 페미니스트는 정신분석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보편화의 폭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한다. 페미니스트의 비판에 대해 ‘그게 법인 걸’하고 말면, 그것은 다시 한번 그 법에 힘을 실어주는 수행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버틀러의 지적이다. 그러나 버틀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학적 논의에서는 ‘그게

법인 걸'하고 단순히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주체를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고 있음도 얘기된다. 버틀러는 라캉의 상징계를 벗어난 길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함으로써 상징계의 초월성을 비판하지만, 라캉이 안티고네를 윤리적인 영웅으로 보는 이유는 상징계가 초월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버틀러가 라캉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것, 다름 아닌 안티고네의 욕망이 바로 상징계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버틀러의 지적에 대해 지젝(Slavoj Žižek)은 『까다로운 주체』 5장에서 “대타자의 중지, 주체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사회-상징적 연결망의 중지를 각오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고유한 윤리적 행위도 없다”²⁾고 대응한다. 즉 지젝의 논의를 따른다면, 쫓겨난 안티고네는 대타자에서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내부의 헤게모니 항들을 “철저히 재배치할 수 있는” 조건을 탄생시킨다. “안티고네가 상징계를 벗어나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하는 버틀러에 대해 지젝은 “라캉에게 있어 지배적인 상징적 질서의 근본적 재분절화가 전적으로 가능하다”(지젝, 421면.)고 말한다.

상징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버틀러는 라캉이 왜 오빠를 ‘순수 존재’로 두었는지, ‘순수 존재’로 됨으로써 오빠에 대한 근친상간적 사랑을 배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럼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정신 분석학적 틀을 다시 한번 수행적으로 강화하는 건 아닌지 묻는다. 하지만 안티고네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빠, 그 오빠의 장례절차가 “욕망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라캉이 ‘순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브제 아의 특성을 갖는다.

라캉의 오브제 아는 욕망이 이성애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욕망은

2)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도서출판b, 2005), p.424.

반대 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젠더에 선행하는 오브제 아에 의해 결정된다.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으로서 오브제 아는 다형적으로 도착적인 성(polymorphously perverted)과 부분충동(partial drive)에 대한 프로이트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예컨대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충동은 미리 결정된 대상이나 목적이 없다. 정신분석학의 통찰은 에로스적인 욕망이 반대 성에 지향성을 둔다는 대중적 개념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이성애규범에 대해 도전한다. 그래서 정신분석학과 퀴어 이론을 연결시켜 보려는 팀 딘(Tim Dean)은 퀴어 이론의 지적 창시자들이 푸코보다는 “대상에 무관심한 충동”과 같은 것을 말하는 프로이트에 더 기대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프로이트는 충동과 대상의 자연적 결합을 분리시키면서, 충동이란 언제나 부분충동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러 부분들이 조화롭게 기능한다는 총체화된 충동의 개념이란 “유혹적인 픽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³⁾ 단일하게, 총체화된 성충동이란 없다.

부분충동의 개념으로 정신분석학이 강조하려는 것은 대상의 젠더가 충동의 작용에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라캉은 생식기적 충동(genital drive)이라는 것에 회의적이다. 무의식에 관한 한 이성애나 동성애적 대상선택을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무의식을 고려하는 주체성 이론은 퀴어의 관점에서 유용해질 수 있다. 요컨대 버틀러가 지적한 것처럼 오빠를 ‘순수 존재’로 두는 것이 안티고네의 사랑을 무시하고 오이디푸스 구도와 이성애 구도에 묶어 두는 전략은 아니다. 라캉이 오빠를 ‘순수존재’로 보는 것은 “대상에 무관심한 충동”이라는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충동이론이 퀴어 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Tim Dean, "Lacan and Queer Theory," *The Cambridge Companion to Lacan*, ed. Jean-Michel Rabaté(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244~45.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젠더 역전을 통해 '성차의 무의식'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사실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한 배를 타고 있다. 왜냐하면 지젝이 언급하듯, 라캉은 성차를 "실재(the real)"의 영역에 두기 때문이다. 버틀러가 젠더 역전을 통해 여자/남자라는 고유의 자질이 대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듯이,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역시 기존의 성차를 나타내는 여자/남자는 '상징적 구분'으로서 각각이 상대방 성에 대립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라캉이 성차를 상징계의 얼룩이자 구멍인 "실재"로 보는 것은 여성을 여성이지 않게 하며 남성을 남성이지 않게 하는 공통된 상실(지젝, 438면)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얘기되는 실재로서의 성차는 『젠더 트러블』 이후 『안티고네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버틀러가 제기하는 정체성(identity)의 철학에 대한 비판과 다르지 않다.

퀴어 이론가로서 주디스 버틀러가 정체성의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팀 딘이 지적하듯이 퀴어 이론과 정체성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1870년대 동성애라는 범주 자체가 없었던 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정체화 되기를 기다렸지만, 문제는 동성애라는 이름이 붙여지자 그것은 범죄로서뿐 아니라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나 질병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에이즈는 "게이의 질병"으로 이해되거나 "부자연스런 성에 대한 신의 처벌"로 설명된다. 그래서 "게이 활동가들은 정체성 담론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게이 해방은 정체성 정치를 믿어야 하지만, 퀴어 액티비즘은 정체성 정치에 대해 비판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퀴어는 정체성을 따지는 것에 반대하게 된다. 퀴어는 본질이 없으며, 퀴어가 하나의 심리적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순간 그것의 급진적인 힘은 증발해 버리고 만다." 정체성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퀴어는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일 수 있다. 따라서 버틀러는 다양한 위반

을 거친 “대표 불가능성”을 안티고네의 정치성으로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정체성을 부정하는 퀴어 이론의 전복적 정치성을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정체성의 부정을 밀어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소위 내게 부여된 상징적 이름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포기한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버틀러의 진단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위가 이상화 되어 버린 시대”이며 “로마 교황청이 동성애는 가족에 대한 공격이자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공격이라고 단언하는 시대”이다. 또한 우리는 “이혼과 재혼 때문에, 그리고 이민과 망명과 난민 신분 때문에, 또한 다양한 종류의 세계적 거주 이전 때문에 자녀들이 이동하고, 가족에서 비가족으로, 비가족에서 가족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는 친족이 취약해지고, 구명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는 시대이다.” 요컨대 지금의 가족 혹은 친족구조는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달리 할 것이다. 그리고 버틀러가 『안티고네의 주장』 마지막에서 주장하듯이 “새로운 영역의 인간은…젠더가 뒤바뀌고 친족이 비틀거릴 때 생겨난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주체가 땅 짚고 설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체가 그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단 버틀러의 바람대로 우연적으로 생겨난 규범은 필연성을 가장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 치명적으로, 일탈된 담론의 형식으로, 전례 없는 미래의 담론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